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㉓ 사미 라후라 이야기



▶ 한줄요약
목련을 따라 출가한 라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밑으로 출가를 한다. 아직 어린 라후라는 놀기를 좋아해 수행에 게으름을 피웠다. 이에 부처님은 "자랄 시절을 기다리냐"며 꾸중한다.

師弟된 아들…"공부하라" 타이른 부처

어머니 야수다라의 손을 놓고 목련을 따라 아버지 석가모니에게로 떠난 라후라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남은 식구들은 홀로 된 야수다라를 어떻게 달래었을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듣고 아는 이야기보다 〈석보상절〉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전개가 유려하고 드라마틱하다.



그림 · 강병호

정반왕의 야수다라 달래기

정반왕이 야수의 마음을 눅이리라 하시어 즉시 나라의 고관들을 모아서 말씀하셨다. "금륜왕의 아들이 출가하러 떠나니 그대들의 아들 각각 하나씩 보내 나의 손자 라후라를 좇아가게 하라." 하시니 즉시 쉰 명의 아이가 모이거늘 라후라 따라가서 부처께 인사를 드렸다.

'마음을 눅이다' 라는 표현을 들어보았는가. 내가 병약하고 까칠한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종종 들었던 말인데 석보상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가운 마음이 든다. 뻣뻣하고 굳은 물건이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뜻이다. 노여움을 눅이거나 화를 누그러뜨린다는 표현으로 남아 있다.

한편 〈석가보〉에는 '호족(豪族)' 으로 나오는 나라의 고관대작들을 '어비맏네' 라고 하였다. '어비' 는 '아비' 와 같은 뜻이고 '맏' 은 '맏이' 라는 의미이다. '네' 는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무리 중에서 족장 정도 되는 아버지 같은 존재를 일컫는 말이다. 오늘에 되살리고 싶은 또 하나의 등재 단어이다. 요즘 우리에게 참다운 '어비맏이' 가 있는가. 앞으로 '리더' 라고 해야 할 자리에 쓰면 좋겠다.

시아버지 정반왕이 금지옥엽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는 며느리 야수다라를 위하여 나라의 어린 동자 50명을 모아 함께 출가시키는 장면이다. 과연 야수다라의 마음은 위로가 되었을까. 생이별을 해야 할 쉰 쌍의 모자들이 생겨 더욱 애닯지는 않았을까.

예전에 카트만두 파탄에 있는 석가의 후손들이 사는 샤키야족 마을에 갔더니 소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 나의 친구 '비놋 샤키야' 의 집에 방문했을 때 사미 모습의 사진이 있어 스님이었냐고 물으니 그렇게 대답하였다. 문득 이때부터의 풍습인가 궁금해진다.

부처를 전륜성왕 중 '금륜왕' 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륜성왕은 '금은동철' 사륜왕이 있는데 '금륜왕' 이 가장 수승한 왕이다. 신라왕들 중에도 '진지왕' 을 '금륜태자' 라고 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왕 노릇을 못한다고 4년 만에 폐위되었지만 〈삼국유사〉에는 아들 비형랑의 노래에 '성스러운 황제(聖帝)' 로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있다. 〈석보상절〉을 읽다 보면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청실홍실 엮이어 우리말과 역사에 아름다운 수를 놓는 기분이 든다.

라후라 사미가 되다

부처께서 아난이를 시켜서 라후라의 머리를 깎이시니 다른 쉰 명의 아이들도 모두 출가하였다. 부처께서 명하여 사리불을 화상(和尙)이 되게 하고 목련을 사리(闍梨) 삼아서 열 가지 계율을 가르치라 하셨다.

화상은 '가까이 있어서 외우게 하다' 하는 말이니 제자가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경을 배워 외우는 것이니 화상은 스승을 이른다. 사리는 '법' 이라고 하는 말이니 제자의 행적을 바르게 하는 스승이다.

열가지 계율(十戒)은 ①산 것 죽이지 말 것, ②도둑질 하지 말 것, ③음란하지 말 것, ④거짓말 하지 말 것, ⑤술과 고기 먹지 말 것, ⑥몸에 향과 기름 바르고 화만과 영락으로 꾸미지 말 것, ⑦노래와 춤추지 말 것, ⑧높은 평상에 앉지 말 것, ⑨먹을 때 아닌 때에 밥 먹지 말 것, ⑩금은보배 잡지 말 것이다.

화상은 경전을 가르치고 사리는 계율을 가르치는 스승임을 알 수 있다. 부처의 사촌동생이자 다문제일 제자인 아난이 라후라의 머리를 직접 깎아 출가시키고 지혜제일 사리불이 스승이 되어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신통제일의 목련은 라후라를 어머니 야수다라에게서 데리고 온 부처의 제자로서 계율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는다.

무엇보다 십계는 우리가 지키는 '불자오계' 에 다섯 가지 계율이 더해진 것인데 수행자로서 가무가 금지되고 몸단장과 금붙이를 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화만은 꽃다발이요 영락은 목걸이다. 주로 관세음보살 같은 보살을 장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때가 아닐 때 밥 먹지 말 것이 눈에 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염두에 두어야 할 항목이다. 〈석보상절〉 3권 '사문유관' 에서 생로병사 중 병의 원인이 입의 번뇌를 못 참아

> 목련을 따라 출가한 라후라
> 놀기 좋아해 수행에 게으름
> 스승과 제자가 된 아들에게
> "자랄시절 기다리냐"고 꾸중

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병이 든다는 구절이 생각나는 경구이다.

놀기를 좋아하는 라후라

라운(라후라)이 어려서 놀기를 즐겨 법 듣기를 싫어하거든 부처께서 자주 타이르셔도 따르지 아니 하였다. 나중에 부처께서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부처 만남이 어려우며 법 듣는 일이 어려운데 네가 이제 사람의 몸을 얻어 부처를 만나고 있으면서 어찌 게을러 법을 듣지 않느냐."

라후라가 사뢰었다. "부처의 법이 정미하여 어린 아이가 어떻게 듣겠사옵니까. 전에 자주 들었던 말은 즉시 도로 잊어 벅찰 뿐이니 이제 어릴 적에는 아직 마음껏 놀다가 자라면 가히 법을 배우겠습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무상하여 몸을 믿지 못할 것이니 네 목숨을 믿어 자랄 시절을 기다리느냐"하시고 다시 설법하시니 라후라의 마음이 열려 이해하게 되었다.

라후라가 출가한 것이 부처의 나이 서른 셋이니 주나라 목왕 7년 병인이다.

이 글을 읽으며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석가모니라 할 지라도 '자식에게 대해서는 똑같구나' 라는 동질감을 느낀다. 라후라가 누구인가. 야수다라의 말솜씨를 그대로 빼다 박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아닌가. 사실 아홉 살 어린 나이에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데 아버지 부처는 그저 수행자로만 만들려 한다. 라후라의 이야기에 어디 하나 틀린 데가 있는가.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 부처의 설법에 라후라도 깨닫고 정진해 '밀행제일' 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일백사십육장

야수를 기쁘게 하리라 정반왕은 쉰 명의 아이를 출가시키니 시아버지의 선심(善心)이 어떠하시니 라운이 시비를 가리거늘 다시 설법하시니 세존의 자비로운 마음이 어떠하시니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불교의 스승과 제자가 된다. 시대를 뛰어넘어 이 인간적인 대화가 정말 흥미진진하다. 부처도 말 안 듣는 아들에게는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일 뿐이다. 자주 타일러도 듣지 않았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는다. 어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리오. 부모가 떠나고서야 그리고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마음을 되짚어 보게 되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 범부의 인생일진대 부처는 아들을 기다려 주고 감복시켜 알아듣게 한다.

이즈음 코로나 5차 대유행으로 몸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도 피폐해져 가족 간의 극단적인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 2년 동안 강제된 격리 생활 속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을 절실히 자각하게 된다. 화가 난다고 감정 조절을 못해 사소한 일로 살인 사건이 다반사가 되어가는 세상에 오늘의 이 사미가 지켜야 할 십계와 부자간의 대화법은 당장 실천할 행동강령이다. 2600년 전 부처와 라후라가 전하는 오늘의 말씀이다.

연재를 마치며

이제 1년 동안 〈석보상절〉 3권과 〈석보상절〉 6권 맛보기를 함께 해주신 독자들께 감사를 드릴 시간이다. 〈석보상절〉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24권 중 10권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 첫 번째 책이 우리가 함께 읽은 3권이다. 팔상도 중 '사문유관, 유성출가, 설산수도' 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4권과 5권은 전해지지 않지만 '수하항마' 와 '초전법륜' 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을 것이다. 지금 읽은 6권은 '녹원전법' 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후라 출가이야기' 다음에는 '대가섭의 출가, 기원정사 이야기, 승만경 이야기, 수달의 이야기, 대집경 · 방등경 · 반야경 이야기' 가 촘촘히 들어 있다.

부처께서 라후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무상하여 몸을 믿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쉽지만 내가 아니라도 이제 누군가에 의하여 〈석보상절〉의 시절인연은 이어질 것이다.

'훈민정음' 만이 전가의 보도인 때는 지났다. 글자를 가진 민족은 많았으나 우리처럼 진화 발전한 나라는 드물다. 아직 우리에게는 주옥같은 훈민정음 글자로 씌어진 〈석보상절〉 아홉 권과 〈월인석보〉 스무 권이 남아있다. 이것을 양날개 삼아 언젠가 반드시 한류가 21세기의 세계 문예 사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석보상절〉이 조선 불교경전으로서 한문, 산스크리트, 팔리어 경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귀하게 여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기대한다. 그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의 몫이다. 〈끝〉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AIR BLASTING
BY WOOD POWDER
에어대패 鉋
목분(木粉)을 이용한
신기술 건식공법!

✻ 목구조 건축물 복원의 신기술 "우드(목분)공법"은 원형복원과 목재의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특화개발된 신공법입니다
✻ 문화재, 사찰, 단청, 한옥, 목구조물, 조경시설물, 특수건축물, 금속이나 비금속, 수지, 석재 등의 소재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천년옻칠 漆
천연 옻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인증 천년옻칠

✻ 해충으로 부터 보호합니다 (방충, 방의, 방부)
✻ 목재의 크랙 및 변색방지 (방수성/방오성)
✻ 목재의 고유한색상을 더욱아름답게 유지합니다.
✻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통기성)

동화특수산업(주)
031-451-6232 / 010-3747-2111

불기 2566(2022)년 임인년(壬寅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축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6(2022)년 임인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16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마감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jabi2018@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